

# '27년 예산안 랜드마크 사업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## <보도내용>

- 2026.6.26(금) 매일경제는 “[단독]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마크사업 키운다” 및 “[단독] "제2의 반도체 키워라"... 제조AX 집중육성” 제하의 기사에서,
  - 기획예산처는 “관계 부처에서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 “10개 안팎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”이라며,
  - “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'미래대응기금'을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'27년 예산안의 핵심사업(소위 “랜드마크 사업”),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입 여부,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130)
	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4-1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jeanghim@korea.kr)